

미국은 《제노사이드의 모국》

전 미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사람들이 미국을 〈제노사이드의 모국〉이라고 규탄하고있는것이 우연하지 않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18~419페이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을 가리켜 《제노사이드의 모국》이라고 한다.

제노사이드란 어원적으로 불 때 씨족, 종족을 의미하는 《제노스》라는 그리스어와 살해를 의미하는 《사이드》라는 라틴어를 합친말로써 인종이나 민족, 종교와 같은 표징에 의해 어떤 주민집단을 통채로 멸살시키는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이 《제노사이드의 모국》이라는것은 바로 미국이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종멸살의 전례를 창조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원래 미국은 그 지역의 원주민이며 주인인 인디안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주로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침입하여 인디안을 멸살시키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세운 나라이다.

인디안들에 대한 멸살정책은 양키식민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본성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제노사이드의 모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체와 그 근원을 까밝히려고 한다.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과 학살만행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감행되게 된것은 15세기말부터 시작된 《지리적발견》과 관련되었다. 근대적식민주의의 서막을 열어놓은 《지리적발견》후 유럽식민주의자들은 다른 대륙에 대한 식민지쟁탈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쟁탈과정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을 동반하여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인종적편견까지 겹쳐져 더욱더 야만성과 잔인성을 띠게 되었다.

유럽식민주의자들가운데서도 가장 야만적인것은 해적의 기질로 길들여진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이였다.

일확천금의 렵기적인 야망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온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은 북아메리카의 넓은 땅을 강탈하고 거기에 미국이라는 악마의 제국을 세웠다. 미국의 형성과정은 말그대로 《제노사이드》과정이었고 미국이 《제노사이드의 모국》으로 등장한 과정이었다.

미국을 《제노사이드의 모국》이라고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양키조상인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다른 인종을 깡그리 멸살시킨 극악한 살인귀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은 인종멸살 그자체를 목적으로 인디안살륙을 감행한 인간야수들이였다.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이 기여든 북아메리카지역은 주인없는 땅이 아니였다.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원주민인 인디안의 여러 종족들이 씨족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고있었다. 처음에 인디안들은 목가적인 생활을 하던 자기들의 거주

지에 뛰여든 백인들을 손님으로 반갑게 맞이하였고 사경에 처한 그들에게 먹을것과 거처지들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은 북아메리카땅에 발을 들여놓자부터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땅을 빼앗고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멸살시키는 길로 나갔다.

극악한 인종주의에 물젖은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안들을 렬등인종으로 간주하면서 《죽은 인디안만이 좋다.》, 《미개인들은 떠나야 한다.》라고 떠벌이며 피비린내나는 인디안살육전을 벌여놓았다.

1637년에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은 우세한 무력을 동원하여 피퀴트족을 불의에 포위하고 그들의 마을을 불살라버렸으며 400명이상의 인디안들을 학살하였다. 놈들은 포로된 남자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부녀자와 처녀들은 나누어 가졌다. 밤파노아크족과의 전쟁때인 1675-1676년간 놈들은 간교한 수법으로 이 족의 추장인 필립을 포로하여 학살하고 그의 머리를 긴 장대에 매달았다. 퓨리탄교의 광신자이며 프리머스식민지교회의 우두머리의 한 놈인 코튼메러는 필립왕의 턱뼈를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귀족같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안종족들을 멸살시키기 위해 종족리간과 배신 등 온갖 비렬한 짓을 다하였다.

그것은 18세기 중엽 오하이오우강류역에 살고있던 알곤킨족의 여러 집단에 대한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의 살육만행에서 잘 드러났다.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은 1765년에 알곤킨족의 반침략투쟁을 진압하였으며 오타와족 추장 몬티오크와 평화를 《약속》하고는 돌아서서 변절자들을 매수하여 그를 학살하고 알곤킨족을 와해시켰으며 프랑스와의 전쟁때에는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이로케즈족들도 멸살시키고말았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침략사들이 기록되어있다.

지난 시기 침략자들이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쫓거나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부려먹었으며 자기들의 침략에 항거해나서는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육한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처럼 인종멸살 그자체를 목적으로 살육을 감행한 실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립법기구까지 동원하여 인디안멸살을 합법적으로 감행한 인간야수들이었다.

제놈들의 강점지역에 13개의 식민지를 차례로 세운 앵글로-썩슨족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립법기구까지 동원하여 인디안살육을 추동하였다.

북아메리카지역의 여러 식민지립법회의들에서는 인디안의 머리가죽에 상금을 붙일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 1703년 뉴잉글랜드립법회의에서는 인디안머리가죽 한장 혹은 포로 1명에 40£의 상금을 주기로 하였으며 1720년에는 인디안머리가죽 1장의 값을 100£로 올렸다. 1744년 매쉴쉴쉴만부근에서 인디안학살전쟁을 감행할 때에는 12살이상의 남자머리가죽에는 새 화폐로 100£, 남자포로에는 105£, 부녀자와 어린이 포로에는 55£의 상금을 준다고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북아메리카의 각 주들에 인디안사냥대들이 무어지고 경쟁적으로 돈벌이용상품인 인디안머리가죽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야수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의 이 치떨리는 만행에 대해 부르쥬아어용사가인 프레데리크 잭슨 터너까지도 《이들의 싸움은 인디안들의 머리가죽과 머리털을 전리품으로 하였다.》고 실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 많은

《상금》을 얻기 위한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의 경쟁적인 인디언사냥으로 1763년에 이르러 에펠레이치산줄기 동쪽지역에서는 인디언들이 기본적으로 멸살되고말았다.

식민지화의 시대가 시작되어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물밀듯이 쓸어들어 그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가혹한 식민지법들을 제정하였지만 그 어느 식민지정권도 북아메리카에서처럼 사람의 머리가죽에 상금까지 제정하고 살육을 합법화한 정권은 없었다.

미국을 《제노사이드의 모국》이라고 하는것은 다음으로 미국이 인디언멸종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국가권력과 정규무력까지 총동원하여 인종멸살을 집요하고 잔인하게 감행한 역사상 첫 국가이기때문이다.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은 영국본토의 통치배들과 북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추악한 쟁탈전을 벌린 끝에 1776년에 미국이라는 극악한 인종주의국가를 조작하였다.

형성당시 미국의 령토는 인디언들의 무덤이었던 북아메리카의 동부연안 13개 식민지였다. 인디언살육을 합법화했던 식민지들이 그대로 미합중국의 구성에 들어왔으며 식민지립법기구의 대표자들이 미국의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았다.

력사에는 미국처럼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주민들에 의해 국가가 세워진 실례들이 있다. 서유럽의 첫 봉건국가인 프랑크왕국이나 잉글랜드왕국도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침입해온 게르만족의 여러 갈래에 의해 세워진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미국처럼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을 깡그리 멸살시키고 세워진 나라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형성후 인디언멸살은 미국의 주요정책으로 되었다.

이 시기 미국의 정책은 인디언을 종국적으로 멸살시키는것이였다. 그것은 북아메리카 서부지역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있던 인디언들이 서부로 령토를 확장하려는 저들의 리익에 저촉되었기때문이었다. 때문에 이 시기 미국의 인디언멸살은 《서부개척》의 미명하에 진행된 서부지역에 대한 령토강탈과 병행하여 감행하였다.

우선 미국통치배들은 립법기구들을 동원하여 인디언멸종을 합법화하였다.

미국통치배들은 1787년 9월 17일에 반동적이며 인종주의적인 헌법을 조작하였다. 헌법 1조 2절 3항에서는 《대표의원 및 직접세는 ...납세의 의무가 없는 인디언을 제외》시킨다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것은 미국통치배들이 인디언들을 미국인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선거권도 공민권도 토지소유권도 주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극히 반동적이며 인종주의적인 이 미국헌법은 인디언을 인간의 자주적권리에 대한 법적보호와 보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해버림으로써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과 토지강탈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수단으로 되었다.

1800년에는 미국회에서 《무단거주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헌법상 공민권에서 배제된 인디언들이 《무단거주자》로 취급되고있던 조건에서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인디언살육전을 감행할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또한 미국통치배들은 정규무력을 동원하고 방대한 자금까지 투하하여 대규모적인 살육전쟁의 방법으로 인디언들을 멸종시켰다.

인디안을 중국적으로 멸종시키는것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내세운 미국통치배들은 조상들의 상투적수법그대로 인디안학살의 기본방법을 대규모적인 살륙전쟁으로 정하고 국가형성직후부터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미국통치배들은 1789년 9월 29일에 미륙군을 창설한 후 《프론티어의 방어》라는 미명하에 인디안문제를 미륙군성이 직접 맡아보도록 하였다. 이 시기 미군은 정부의 인디안멸종정책에 따라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기습, 포위공격, 추격, 토벌 등 대규모적인 군사행동을 벌려 인디안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다. 바로 여기에 국가형성이전시기와 다른 인디안살륙의 특징이 있다.

《프론티어》란 경계선이라는 의미로서 미국식민주의자들이 강점한 지역과 인디안소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미국의 령토는 첫 식민지가 조작된 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프론티어》를 부단히 이동시키는 과정에 확장되었다.

미국통치배들은 대규모적인 인디안살륙전을 위해 인디안들이 많이 집중되어있는 지역들에 《개척민보호》(백인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보호를 의미)의 간판밑에 요새들을 건설하고 정규군을 배치하였다. 미국군대는 이 요새들에 의거하여 인디안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륙전을 감행하였다.

미국통치배들은 1793년에 당시 미륙군 최고지휘관이었던 안토니 웨인을 우두머리로 하는 2 600명의 정규군을 파견하여 미아미강류역의 델라웨어족을 비롯한 오하이오우강류역의 인디안들에 대한 살륙전쟁을 벌리었다.

미국통치배들은 1862—1867년에 나바토족, 사우족, 체이엔족 인디안들을 살륙하기 위한 전쟁에 1억US\$를, 아라바호족, 샤이안족 인디안들을 살륙하기 위한 전쟁에 4천만US\$를 지출하였다.

또한 미국통치배들은 살륙전쟁과정에 살아남은 인디안들을 《인디안지정보호구역》에 가두어놓고 극악한 인종격리정책을 실시하였다.

1830년 5월 28일 미국대통령 잭슨의 명의로 미씨씨피강의 동쪽지역 인디안들을 미씨씨피강의 서부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킬데 대한 지시를 내리고 국회에서 《인디안강제이주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834년 6월 30일 미국회에서는 《인디안전용지》설치계획을 논의하고 아컨쏘지역의 서부(오늘의 오우클러호우머지역)를 《인디안지정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여러 지역에 널려있는 인디안들을 여기에 격리시킬것을 결정하였다.

《인디안지정보호구역》이란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척박하고 궁벽한 지역으로서 사실상 철창없는 감옥이었다.

미국통치배들은 1838년 5월에 7 000명의 정규군을 동원하여 크리크족과 체로키족인 디안부락에 대한 대규모적인 포위진을 형성한 다음 그해 10월까지의 기간에 1만 4 000명의 인디안들을 철저한 감시속에서 오우클러호우머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키었다. 5개월간에 걸치는 강제이주과정은 모진 추위와 굶주림, 질병과 미국군대의 야수적만행 등으로 4 000여명이나 생명을 잃은 비참한 과정이었다.

《인디안지정보호구역》에 갇힌 인디안들은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속에 헤매였으며 멸종상태에 처하였다.

미국인종주의자들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격리된 인디안들을 멸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유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였을뿐아니라 단종수술까지 강요하는 반인륜적만행까지 감

행하였다. 그리하여 겨우 살아남은 인디안들마저 후대도 남기지 못하고 여기서 그대로 죽어갔다.

이처럼 반인륜적인 인종멸살정책에 의하여 인디안들은 멸종되어가고있었으며 인디안들로부터 빼앗아낸 영토는 미국의 소유지로 되었다.

미국통치배들은 다른 유럽식민주의자들과의 전쟁으로 그들이 이미 차지하였던 땅들을 빼앗아내는것과 함께 에펠레이치산줄기 서부지역에 살던 인디안종족들을 하나하나 멸살시키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국가형성초기 대서양연안의 13개 주에 국한되었던 미국의 영토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태평양연안에까지 확대되고 48개 주로 늘어났다.

이 시기 아메리카대륙의 여러 지역에 기여든 유럽의 다른 나라 식민주의자들도 인디안들을 많이 학살하였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 기여든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처럼 합법적으로 사람의 머리가죽에 상금까지 걸고 그렇게 야만적으로 살륙을 조장시킨 실례, 인종멸살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단종까지 강요하면서 원주민의 씨를 말리운 그러한 실례는 인류력사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오늘날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에는 인디안과 백인들의 혼혈인이 거의 없다. 또한 미국에서 인디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0.2%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아메리카나라들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것은 명백히 단순히 반항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아니라 인종멸살을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집요하고 잔인하게 감행된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살륙행위의 후과이다.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이 그토록 악랄한 인종멸살정책에 매달리게 된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인종주의가운데서도 가장 극악한 인종주의인 앵글로-색슨주의가 골수에 짝 들어찬 인간야수들이기때문이다.

인종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피부의 색깔에 따라 규정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이다. 인종주의는 인종들간의 선천적우열을 전제로 삼고 한 인종에 대한 다른 인종, 주로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의 침략과 지배, 증오와 멸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작된것이다.

인종주의를 체계화한 프랑스의 고비노(1816-1882)를 비롯한 인종론자들은 백인을 《고등인종》으로, 유색인을 《하등인종》으로 규정하고 유색인은 력사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며 인류력사의 모든 우수한것은 백인이 창조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고급문명은 특정의 인종이 아니고서는 가질수 없다. 야만인종은 어디까지나 야만인종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백인종만이 가장 높은 문명을 가질수 있고 《완전한 가치》를 가지기때문에 백인종만이 다른 인종을 지배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과학적인 인종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극악한 파쑈광인 히틀러도 아리아인종의 《우월성》을 떠들며 유럽과 전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야마도민종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앵글로-색슨주의는 인종주의가운데서도 가장 극악한 인종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앵글로-색슨주의가 백인종의 《우월성》을 떠드는 인종론에 기초하고있지만 백인종가운데서도 앵글로-색슨족을 가장 우월한 인종으로 내세우는 사상이기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앵글로-색슨주의는 앵글로-색슨족이 백인가운데서도 가장 《우월한 인종》이므로 유색인종들은 물론 다른 백인들까지 지배할 사명을 지니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 론리로부터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은 북아메리카땅에서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을 깡그리 멸족시키고 그들의 경로를 강탈했을뿐만아니라 백인들인 프랑스나 네데를란드인들이 차지했던 지역까지 다 빼앗아 자기의 경로로 만들어버렸던것이다.

이처럼 앵글로-색슨족식민주의자들의 골수에 짝 들어찬 극악한 인종주의가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과 더불어 저들의 가슴속에 견잡을수 없이 끓어번지던 일확천금에 대한 령기적인 야망과 결합되어 아메리카력사에 《제노사이드》라는 비극을 《탄생》시켰다.

때문에 세계인민들은 오늘까지도 미국을 《제노사이드의 모국》이라고 규탄하고있는 것이다.

사람잡이를 도락으로 삼는 양키조상들의 야만적인 기질은 바로 미국이라는 악마의 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초기 인디안멸살과정에 형성되고 체질화된것으로서 절대로 변할수 없는 미제국주의의 본성으로 되었다. 바로 그러한 살인귀적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땅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시기 가장 야만적인 군대라고 하던 히틀러파쑈배들까지 무색케 하는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제노사이드의 모국》으로 세상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미제국주의가 오늘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은 우리의 존엄높고 신성한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며 인민대중의 인권이 가장 참답게 보장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빛내어나갈것이다.